



## 이름 : 메기

세계에는 메기 2400종 이상이 서식하는데 34개 과로 나눈다. 한국에 서식하는 메기는 크기가 30cm에서 1m 정도지만, 유럽이나 남미, 인도에는 2.5m 이상 자라는 거대한 메기들도 있고, 반대로 남미에는 1.5cm에 불과한 소형종도 있다.

사는 곳도 넓고 종류도 넓은 만큼 천차만별이다. 메기는 흔히 살이 말랑말랑하고 수염 달린 물고기로 통한다. 하지만 다른 물고기 뺨 때리는 경린이나 다름없는 단단한 외골격을 가진 종이 많고, 남미의 돌핀 캣피쉬는 메기의 상징인 수염이 없다. 그만큼 종이 많고 번성했다는 뜻. 생김새가 고양이의 수염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서 영어로는 cat fish라고 부른다. 수염이 있는 메기에게는 수염은 메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수염의 민감도가 보통이 아니어서 진흙바닥의 모든 진동을 느낄 정도라고 한다. 또한 미뢰가 모든 동물을 통통해서 가장 많아 입뿐만 아니라 머리로도 맛을 느낄 수 있다. 돌핀 캣피쉬는 밤에 정신없이 여기저기 헤엄치고 다니면서 몸에 부딪친 물고기를 덮친다.

한국에 서식하는 메기 *Silurus asotus*는 미꾸라지처럼 미끄럽고 뒷지느러미가 갈치처럼 꼬리까지 이어지지만, 세계의 다른 메기들과 비교하면 생김새가 특이한 편이다. 오히려 열대어인 붉은꼬리메기나 토종 물고기인 빠가사리의 모습이 세계 메기의 평균에 가깝다. 열대어로 인기가 있는 아마존의 붉은꼬리메기(레드 테일 캣)을 보면 보통 물고기처럼 지느러미가 따로따로 떨어졌는데, 이 메기가 속한 pimeroideae가 남미에서 가장 번성한 속이다.

대다수의 종들이 가슴지느러미와 등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가시(거치)를 지니고 있고[2] 쏘롱개 등은 독침까지 지니고 있다. 몸이 대부분 점액질로 미끌미끌해서 다른 물고기들보다 가시에 베이기 더욱 쉽다. 그래서 메기류들을 손으로 함부로 잡았다간 한번이라도 발버둥치는 순간 손이 짹 짹 베여나가 피가 철철나는 광경을 볼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그나마 날카로운 가시가 없는 한국 메기나 파지범이 있는 플레코 등은 안전하게 잡을수는 있다.